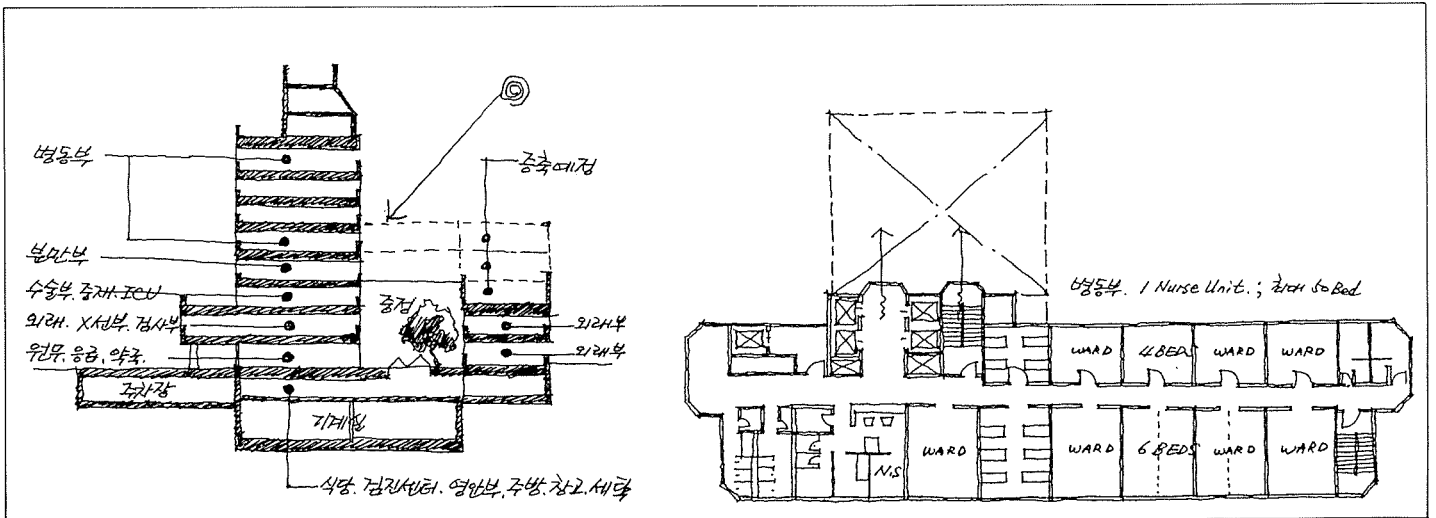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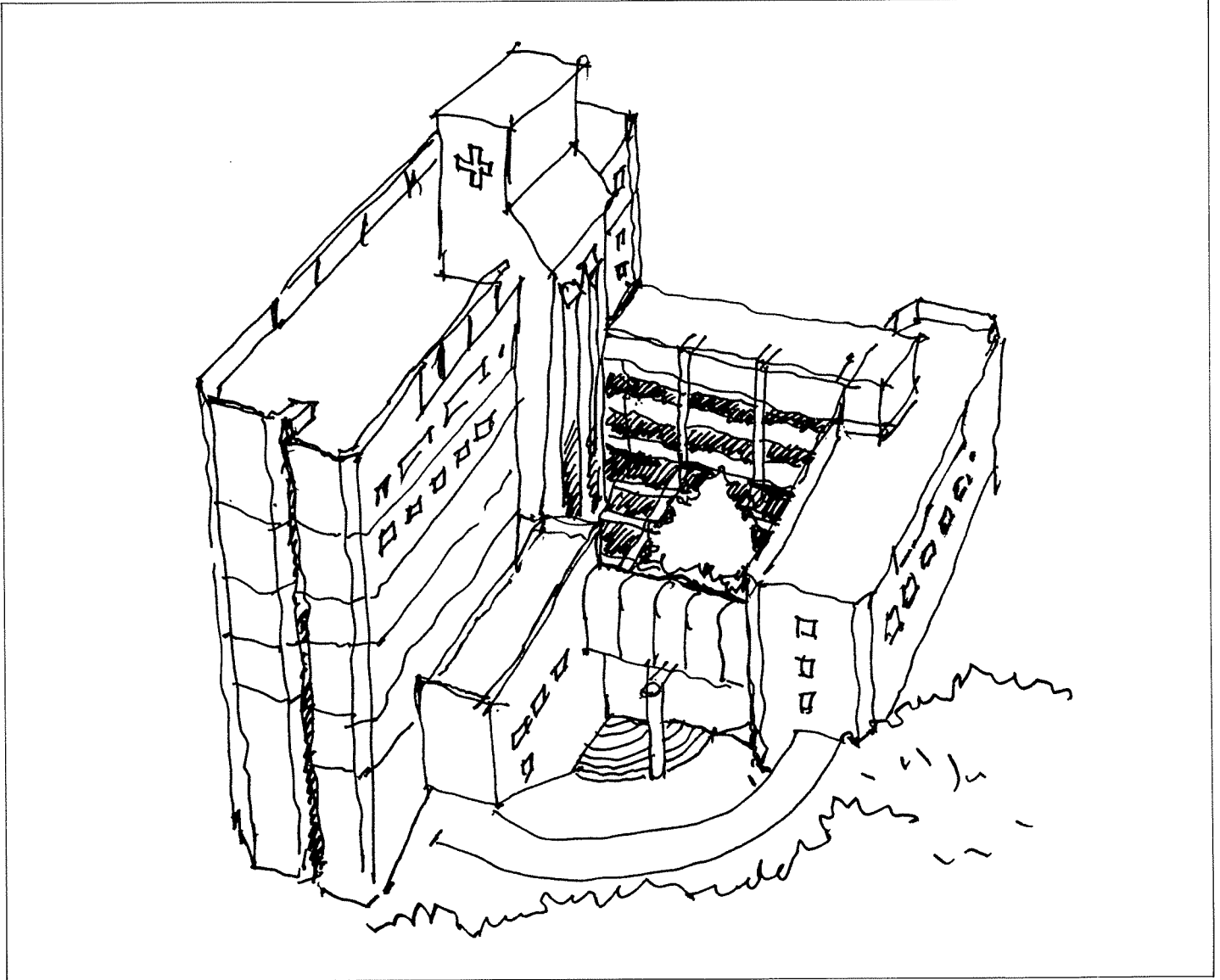


# 구미중앙병원

Kumi Jung Ang Hospital

鄭賢和/(주)원도시건축

Designed by Cheong, Hyeon-Hwa



건물명 / 현암의료재단 구미중앙병원  
 대지위치 /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번지  
 대지면적 / 8,352㎡  
 건축면적 / 2,153㎡  
 연면적 / 15,055㎡  
 건폐율 / 25.78%  
 용적률 / 122.13%  
 층수 / 지하2층, 지상8층  
 병상수 / 280병상(장래층축 480병상)  
 설계일자 / 1993년 5월, 준공예정일자 / 1994년 11월

중규모 병원에서의 중정(中庭)의 의의

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은 Florence Nightingale 이다. 병원건축은 우선 「환자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.」 그리고 좋은 병원은 「훌륭한 외관이 아니고, 환자에게 신선한 공기, 빛, 실온을 공급하는 것에서 얻어진다.」라고 주장하였다.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층 패빌리온·타입으로 병동 및 진료부의 배치에 마당을 끼게하여 일조, 통풍을 확보하였다.

근대병원이 고층화되면서 병실을 고층부에 두면 조명이나 통풍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으나, 외래 및 중앙진료부 등은 관계제실의 수가 많으며 동선 해결상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배치 계획에 많은 공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. 물론 최신시설의 대규모 병원은 고급 기계설비의 확보에 의한 인공적 환경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, 앞으로 전문병원의 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하게 될 중소규모의 병원에서는 관리운영면에서 자연적 환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.

원도시건축이 계획하고 설계한 일련의 병원프로젝트에서는 적극적인 「중정」(Court)을 퍼브릭에리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왔다.

그 중에서 최근에 공사를 진행중인 (공정 75%) 구미중앙병원의 계획설계단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스케치로 정리해 본다.

